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보도자료

<http://www.gist.ac.kr>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담당	홍보팀 김효정 팀장	062-715-2061 / 010-3644-0356
	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	062-715-2062 / 010-2008-2809
자료 문의	AI연구소 공득조 박사	010-9414-9570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의 상상, 현실로!

- 국민이 상상한 미래사회 시나리오 10개 최종 선정
- 지스트, 2050년 국민이 행복한 미래사회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 김기선)이 주관한 「제1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이 2월 19일에 개최되었다.
 - ※ (일시/장소) '20.2.19(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
- 본 공모전은 지스트가 과기정통부 '선도형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제에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2050년 미래사회를 상상하고, 이를 시나리오 형태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국민 수요 중심형 과학기술과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사회상에 대해 국민이 직접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공모전이 실시되었다.
-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13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어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1단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5개의 작품을, 2단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의 작품을 선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1,045명 참여)를 통해 최종 10개 작품에 대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 시상내용 >

상격	대상(명)	상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	1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상	2	각 50만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2	각 50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2	각 30만원
한국발명진흥회회장상	3	각 30만원
총	10명	

-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은 △두려운 상황 또는 원하는 상황에 대한 가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체험 기계를 통해 고령자가 그간 지닌 무력감과 우울증에서 탈피하는 내용인 「원하는대로 가상현실 인공지능(AI)」가 수상하였다.
- 이외에도 △운동선수가 인공 팔을 이식받아, 운동신경이 향상되는 내용(광주과학기술원 총장상), △인공 자궁의 보편화로 난임문제를 해결 하였지만,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내용(한국창의재단 이사장상)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담은 작품들이 최종 수상작 10편으로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작 : 원하는 대로 가상현실 AI >

- (내용) 두려운 상황 또는 원하는 상황에 대한 가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 AI 기계를 통해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고령자가 특정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상황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제2의 직업도 갖게 되는 이야기

- 한편, 지스트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431개 작품 속 미래기술들과 기존 선행조사(미래예측보고서, 공상과학소설/영화/드라마 분석 등)의 기술들을 심층분석하여, 국민의 수요(Needs)를 반영한 미래 중점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할 예정이다.
- 이렇게 도출된 미래 기술 분야는 요소기술 구체화를 통해 신규과제 기획 및 정책 지원 방향 도출 등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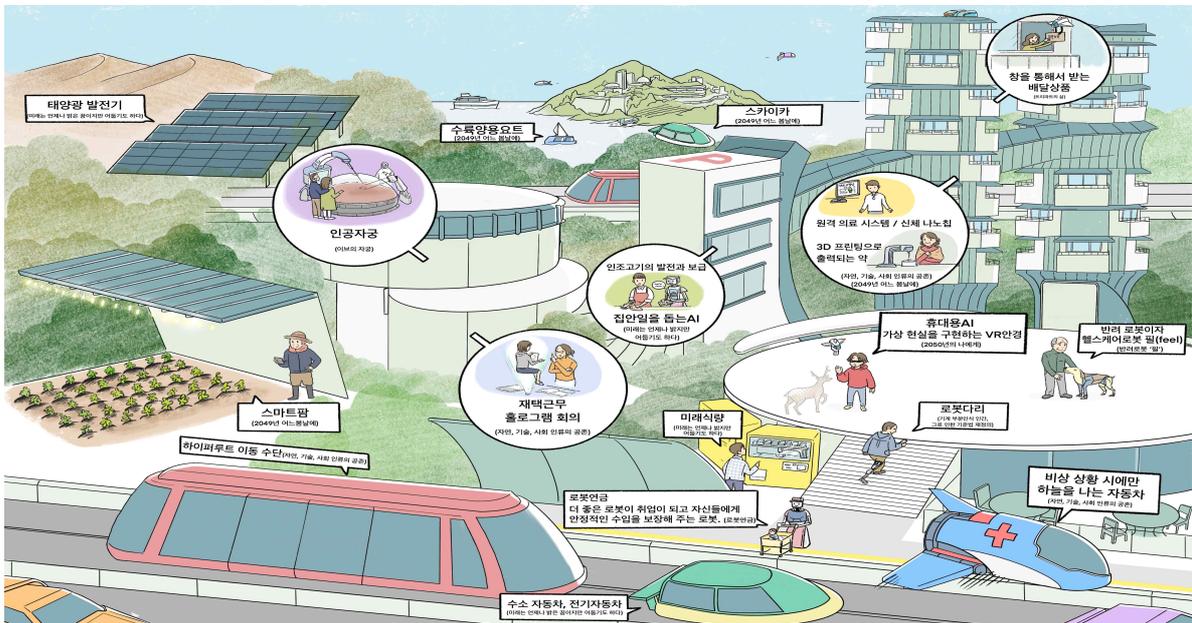
-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이끄는 과학기술과 정책을 도출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면서,
 - “과학기술로 미래사회에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적 지원방향이 도출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본 공모전을 기획한 지스트 공득조 박사는 “과학기술의 빠른 진화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과학기술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면서,
 - “국민과 함께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보미씨는 “새로운 상황에 도전할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개발되길 희망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붙임 1. 공모전 수상작 주요내용 및 삽화
 2.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개최계획

순위	작품명 (시상)	내용	수상자
1	원하는 대로 가상현실 AI (과기정통부장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의 주인공은 무인의료시스템에 대한 공포감을 가상현실 AI 기기에서 연습하면서 극복 또한, 가상현실을 통해 직업훈련을 진행하여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손자의 관심분야를 가상현실로 학습하여 세대화합이 이루어지면서 그간 지닌 무력감과 우울증에서 탈피 	김보미 (대구중구청)
2	2049년 어느 봄날에 (GIST 총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공은 인공지능 조리도우미, 원격의료시스템, 스마트팜, 스카िका 등의 기술로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함 	변우복 (운양고 교장)
3	기계 부분이식 인간, 그로 인한 인간 기준법 재정의 (GIST 총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로 다리를 잃은 인간이 로봇다리를 이식하고, 원래 직업인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두됨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로봇인간의 효율성으로 인간들의 기계이식 수요가 증가함 이에, 인간, 로봇인간의 정의 및 규칙 등 새롭게 정의해야 할 문제가 발생 * 인간과 새로운 인류(로봇) 경쟁시대에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배철희 (농부)
4	반려로봇 ‘필’ (연구재단 이사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로봇이 독거노인의 헬스케어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친구의 역할로 자리매김 	김승범 (삼성중공업)
5	트리파트의 삶 (연구재단 이사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리파트는 온실가스 최소화 및 자연친화적 사람들의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트리+아파트 합성어 첨단과 자연의 공존하는 미래형 주택 	이영미 (-)
6	미래는 언제나 밝은 꿈이지만 어둡기도 하다 (창의재단 이사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조고기 및 곤충식량, 수소/전기자동차,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AI 관련 직업창출 등 긍정적 미래와 사생활 침해, AI 오류에 따른 사고발생, AI 인권문제, 돌연변이 인간 등의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 	강진 (목표 덕인고)

순위	작품명	내용	수상자
7	자연, 기술, 사회, 인류의 공존 (발명진흥회장상)	· 미래사회는 개인용 인공지능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인용 AI로 인해 차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짐 · 자연과 과학기술의 공존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 및 인류의 발전 방향을 습득	노아람 (중산고 교사)
8	2050년의 나에게 (발명진흥회장상)	· 휴대용 AI는 인간의 뇌파를 분석하여, 편리함을 지원하지만,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 감소와 인간의 감정이 소멸되는 부작용을 초래	김민경 (-)
9	이브의 자궁 (창의재단 이사장상)	·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은 난임부부 문제를 해결한 반면, 상류층 여성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궁을 적출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됨 · 난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는 다르게 또 다른 빈부격차를 초래함	박건희 (KAIST 대학원생)
10	로봇연금 (발명진흥회장상)	· 인공지능 및 로봇시대에 개인은 1체의 로봇을 소유하고, 기업의 로봇 소유가 불가하지만 로봇을 채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내용이 헌법에 반영됨 · 더 좋은 스펙의 로봇을 소유한 개인은 그 로봇이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개인의 로봇의존도가 높아지는 ‘로봇연금’이라는 사회현상이 발생함 · 인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성적이 좋아야 그만큼 국가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 더 좋은 스펙의 로봇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임	김서영 (유한대학교)

□ 10개 수상작의 미래기술을 보여주는 미래사회 삽화(이미지)



□ 개 요

-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시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기정통부 정책 홍보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행사내용

- (일시/장소) 2. 19.(수) 10:30~13:30, 서울(오찬 제공, 신라스테이 서초)
- (주요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광주과학기술원(부총장), 한국연구재단(국책사업실장), 한국과학창의재단(국장), 한국발명진흥회(부회장), 수상자 및 연구관련자 등 30 여명 내외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광주과학기술원
- (행사내용) ‘과학기술 기반 대국민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 및 시나리오 기획 취지 공유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	참석자 소개	광주과학기술원 (책임연구자)
10:35~10:40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0:40~10:50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연구 경과보고	광주과학기술원 (책임연구자)
10:50~11:15	시상식 및 사진촬영	
11:15~11:55	자유토론 (수상자 : 시나리오 기획 취지 설명) (심사위원 :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11:55~12:00	마무리 정리	12:00 이후 식사장소로 이동 (자유식사_뷔페)